†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 독서: 이승환 안드레아, 김보미 로사
금주 미사 복사: 권민호 바오로
다음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금주 미사 해설: 성인영 마리스텔라
다음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231
감사헌금: $50(Lisa An)
$50(황성필/성인영)

합계 : $331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세례자 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구역

금주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봉헌봉사: 김지원 카린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묵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8 월 9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하계 휴식기 (9 월 재시작 예정)
예비자 교리 모임	첫모임 - 7 월 27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장소,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부생 구역	미정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복음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연중 제 17 주일 **2013 년 7 월 27 일**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20-32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2,12-14

화답송

시편 138(137),1 과 2 ㄴ.2 ㄱㄷ과 3.6-7 ㄱㄴㄷ.7 ㄹ-8(◎ 3 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13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왼편에 복음 계속됩니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시작: 12 봉헌: 213 성체: 173 파견: 472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래전 본당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기업 중 손꼽히는 곳에 들어가 순탄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세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던 그는 결국 상태가 나빠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인 관계마저 힘들어져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은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 실망한 나머지 신앙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병을 극복하는 힘을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기도 내용을 바꾼 이후로 저는 몸과 정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 찾아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다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저는 견딜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4)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신앙인이 지녀야 할 참다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루카 11,9)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명동 지하성당 입구에 걸린 문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데…."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허영엽 마티아 신부

† 공지사항

1. 지난주 견진성사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권민호 바오로, 문추자 실비아, 안 Lisa 엘리사벳, 성인영 마리스텔라, 윤영미 엘리사벳, 이승환 안드레아, 이지원 사비나,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황성필 세례자 요한
2.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 홍승모 미카엘 몬시뇰님, 그리고 이용옥 요한 보스코 신부님을 모시고 견진, 미사, 그리고 공동체 식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신 사목회, 전례단, 성가대, 그리고 각구역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예비 신자 입교를 축하합니다.
   오늘 예비 신자로 등록하여 교리공부를 시작하는 강동현 형제님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7 월 정기 사목회의가 28 일 오후 4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8 월 회계보고와 정착/성당 홍보입니다.
5. <u>시카고 여성 제 14 차 꾸르실료 참가 신청안내</u>
   - 일시: 8 월 31 일 (금, 오후 5 시) ~ 9 월 3 일(월, 오후 5 시)
   - 장소: Bellarmine Jesuit Retreat House 420 West County Line Road, Barrington, IL 60010
   - 지도 신부님: 전수홍 안드레아
   - 신청비: 300 불
   - 참가를 원하시는 자매님은 신부님께 문의해주세요. (이미 공식적인 접수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매디슨 한인공동체에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추가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 시부터 2 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셔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단 모집(계속)>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러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